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정 영 권**

요약

본 논문은 2000년대 초반 북한영화에 나타난 청년세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고난의 행군’ 등을 거치며 청년들의 사상과 의식을 통제해왔다. 소위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호명하고, 국가와 당,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해왔다.

북한의 ‘예술영화’(극영화) <흰 연기>(2000), <세대의 임무>(2002)는 ‘청년 과학자’를, <청춘의 자서전>(2001)과 <청년들을 자랑하라>(2003)는 ‘청년동맹’을 재현한다. 이 영화들 속에서 부모세대, 특히 아버지나 유사아버지로 지칭될 수 있는 인물들은 죽었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결코 거부하거나 청산해야 할 낡은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 드넓은 이해심과 자애로움으로 자식 세대를 감싸 안으며 자식세대는 그런 부모세대를 존경심으로 받든다. 이는 김정일 체제가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것, 인민들이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제어: 북한, 영화, 청년세대, 청년과학자, 청년동맹, 청년중시정책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7326)

**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youngkwon74@hanmail.net

I. 영화와 청년

어린이들과 노인들, 중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특정한 영화가 아닌 한 영화는 젊음을 재현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는 젊음을 사랑하는가? 아주 간단한 항목들이 이 대답을 채운다. 우선, 자본주의는 젊음을 끊임없이 예찬한다. 자본주의는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자체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체제이다. 이것은 곧 새로운 소비의 패턴과 트렌드를 창조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다. ‘젊음(youth)’은 상업 마케팅을 위해 특화된 핵심적 집단이며 젊음을 대하는 태도는 광고업자, 사업가, 정치가들에 의해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착취적으로 활용된다(Shary 2002, 22). 1990년대에 회자되었던 ‘신세대’, ‘X세대’나 최근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등이 몰고 온 열풍은 젊은 세대를 소비의 타깃으로 삼거나, 과거의 향수를 소비하는 세대를 위한 마케팅이다.

둘째, 젊음의 반항과 변혁, 저항은 청년·청소년 세대들이 열광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화가 사랑해 마지않는 주제이다. 특히,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학생운동(student power)과 청년문화(youth culture)의 열풍이 불었을 때, <이지 라이더 Easy Rider>(1969) 같은 일종의 대항영화(counter-cinema)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체제를 거스르는 젊음의 힘이 그만큼 강대했기 때문이며, 영화를 제작하는 자본도 그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도 <바보들의 행진>(1975)이라는 시대의 걸작을 탄생시켰다. 자본주의 영화산업은 이러한 젊음을 타깃으로 한 특정한 영화장르를 갖고 있다. 십대·청소년영화(teen film/movie, teenpics), 청년·청춘영화(youth film)라 부르는 장르가

그것이다. 캐릭터의 나이에 기초하는 이 독특한 장르는 위에서 거론한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체제에 순응적인 소비의 포로와 체제에 저항하는 청년의 표상.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에라도 투자할 영화자본의 속성을 거스르지는 못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젊음 청년은 자본주의와는 조금 다르다.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는 젊음을 이데올로기와 체제 선전의 전위대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경쟁’의 노동영웅 스타하노프나 1950~1960년대 중국에서 ‘완벽한 사회주의적 인간’의 전형으로 선전된 레이펑의 이미지들은 사회주의가 요구하는 청년영웅의 상(像)이다(이종훈 2005; 차문석 2005).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생산의 영웅들이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예찬하며 노동과 생산과정을 은폐하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잡고 마침내는 추월한다는 명목으로 생산의 속도를 찬양한다. 이 때 사회주의 국가의 청년들은 생산의 전위대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노동계급이 혁명의 실질적인 ‘주력군’으로 성장하지 못한 식민지반봉건상태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시도한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이종석 2000, 307). 북한에서도 청년들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며 영화를 비롯한 예술작품에서 청년의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전형화 된다.

북한에는 자본주의 영화산업의 장르인 십대영화, 청년·청춘영화에 해당하는 장르는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영화¹⁾는 있어도

1) 북한의 아동영화는 매우 독특한 분류개념이다. 자본주의 영화산업의 장르분류상 아동영화는 극영화의 하위개념인 데 반해, 북한의 아동영화는 극영화에 해당하는 ‘예술영화’, 그리고 기록영화, 과학영화와 함께 북한영화의 ‘4대 장르’를 구성한다. 북한 아동영화의 대다수는 만화영화(애니메이션)인데, 성인을 위한 애니메이션은 찾기

청년·청소년만을 타깃으로 하는 영화장르는 따로 없다. 이는 영화를 문화상품이 아니라 인민교양으로 보기 때문이며, 청년·청소년 문제가 인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전영선 2005, 366). 그러나 영화 속에서 청년의 삶을 그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이들 영화가 주로 청년들의 교양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북한영화에 재현된 청년세대의 문제를 다룬다. 보통 청년과 청소년을 구별 없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청년세대란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젊은 성인(young adult)’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다. 특히, <흰 연기>(2000)와 <세대의 임무>(2002)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제기된 ‘청년중시’ 정책과 그에 따른 ‘청년 과학자’의 형상화(이는 또한 ‘과학기술중시’ 정책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청춘의 자서전>(2001), <청년들을 자랑하라>(1,2부, 2003)를 중심으로 북한 청년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청년동맹’의 형상화를 조명할 것이다.

영화장르로서의 청년/청춘영화가 ‘질풍노도’ 시기의 반항이나 저항, 새로운 소비문화의 트렌드로 뒤덮이는 것과는 달리, 북한영화 속의 청년세대는 생산의 혁신을 가져오는 패기와 저돌성을 예찬하지만 주로 (조)부모 세대의 가르침과 교양(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동년배 집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럼으로써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해이해질 수 있는 청년들의 사상교양이 강화되는 측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위 네 편의 영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작품들이 소위 김일성 사후 4년간의 유훈통치(1994~1998)가

어렵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영선(2010) 참조.

끝난 후 제작되어,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청년 정책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영화들이며, 이전 영화들에 나타나는 전쟁이나 항일투쟁에서의 청년영웅(대표적으로 리수복 영웅)들과 달리 동시대의 일상적인 청년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1세기 벽두에 북한의 ‘청년중시’ 정책이나 과학기술중시 정책, 청년영웅 도로 건설 등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시대적 특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세대를 결코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는 북한영화 고유의 관습이 잘 드러나는 영화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 영화들이 2000년대 중반 북한 청소년을 다룬 ‘성과작’ <녀병사의 수기>(2003)나 <한 녀학생의 일기>(2006)에 비해 그 지명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1990년대 영화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영화에서 북한 청년·청소년 세대 재현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영화에 재현된 청년세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녀병사의 수기>나 <한 녀학생의 일기>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지만(김선아 2013; 이명자 2008) 세대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이들 연구는 특정 영화가 북한 국내외에서 수용되는 관객성의 맥락을 진단하거나(김선아 2013), 수기나 일기라는 고백의 서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이명자 2008). 이명자(2005)는 김정일 시기가 족멜로드라마라는 큰 틀에서 가족과 세대교체의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청년세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 전영선(2005)의 연구는 북한의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그러나 청소년 교양사업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영화 텍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라고 말하긴 힘들다. 이 밖에 청년세대를 다루고 있진 않지만 본 연구의 중심 쟁점 중 하나인 선군시대 과학자 형상에 대한 한승호(2009)의 연구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영화 속 청년세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

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영화학, 북한학, 정치학, 여성학 분야에서 북한 영화 속 여성 재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하면 북한영화와 청년세대 문제는 새롭게 연구하여 이론을 정립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청년론이나 청년동맹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지만, 영화가 청년을 어떻게 재현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북한영화 속 청년 재현문제를 역사적·이론적으로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보다 발전된 이론 정립을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II. 청년과 북한 영화

1. 사회주의 청년론

서구에서 청년이나 청소년과 같은 개념은 근대의 산물이다. 서구 사회에서 대략 19세기 후반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청년의 비중도 높아졌고 청년기라는 생애 단계도 새롭게 정의되었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고 또,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사춘기라는 특별한 생애단계가 형성되었고, 국가의 사회정책에서도 새로운 청년 개념, 즉 비자립적 생애단계이자 해로운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탄생하였다(로즈먼 2014, 255). 한편으로, 청년 투르크당의 예처럼 반(反)봉건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반(半)식민지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진보적인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청년·청소년이 서구에서도 근대적 개념이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세기말에 청년은 ‘문명개화’와 동일시되었으며(이

기훈 2014, 42-58), 식민지 조선에서 청년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할 선도적인 주체로 규정되었다. 이기훈은 식민지 조선 시기 민족주의 청년론을 논하며 청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이기훈 2014, 113-128). 첫째, 청년은 새로움을 의미한다. 새롭다는 것은 옛 것과의 대조를 통해 더욱 극명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신(新)과 구(舊), 청년과 노년을 대조함으로써 청년의 의미는 명확히 규정된다. 청년은 신문명의 주체로 강조되면서 청년 외의 조선 인민 전체는 옛 것, 낡은 것, 궁극적으로 계몽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즉, 청년은 새로운 조선을 이끌어 나갈 주체이며,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옛 조선, 낡은 조선인 것이다. 둘째, 청년은 조선 민족과 사회의 운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었다. 조선은 청년이 짊어져야 할 대단히 무거운 짐으로 묘사되며, 더 나아가 2000만 민족의 운명이 청년의 수중에 놓여있다고 까지 표현된다. 이렇게 청년이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선각자로 부각되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앞이 없는 인물’임에 비해, 청년은 배우는 자이면서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다. 셋째, 청년은 헌신을 통해 대중의 사회정치적 힘을 집결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민족 내부의 힘을 결집하고 이끌기 위해서 청년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 청년론이 주창한 대중의 사회정치적 힘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직접적인 행동이나 투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문화주의적 계몽과 실력 양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청년이 근대적 합리성을 내면화해 계몽적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도 ‘수양(修養)’이라는 말로 집약되는 자아실현과 인격의 완성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청년론은 민족주의 청년론의 이러한 온건성에 도전하고자 했다. 올리케 유라이트와 미하엘 빌트에 따르면, 세대는 대체로 네 가지 측면으로 집약된다. 정체성의 형성, 집단과의 연계, 경험의 공동체, 행동의 중요성이 그것이다(유라이트 외 2014,

16). 그렇다면 청년세대란 청년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적 연계, 경험의 공동체와 행동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세대를 일컬을 것이다. 사회주의 청년론은 그것을 계급에서 찾았다. 노동계급이나 농민층이 혁명의 실질적인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은 계급적으로 자각한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기훈 2014, 167). 지식계급 출신이 무산계급적 지향과 정체성을 갖기 위한 계급적 자각, 사회주의 청년운동의 집단적 연계, 수양이라는 다분히 개인적 실현에 국한하지 않는 운동 공동체적 경험과 행동은 사회주의 청년(론)을 민족주의 청년(론)과 구분 짓게 했다. 감성보다 ‘지(智)’와 ‘덕(德)’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청년론에 비해 사회주의 청년론은 감성적·행동적 주체를 강조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에게 계급의식의 자각이란 역사적 필연성을 체득하는 이성적 과정이자, (부르주아적 문화와 의식에 오염되지 않은) 순연한 계급의식에 눈뜨는 과정, **감성적·행동적 주체**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순수한 감성적 존재로서 청년을 재구성하는 것은 **수양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폭발성과 혁명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이 경우 청년성은 계급적 자각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세대적 특성이 된다. 즉 청년이란 과학과 역사, 계급의 담론 구조 속에서 감수성과 적극성, 헌신성과 같은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폭발적 행동 요인의 담지자**인 것이다.”(이기훈 2014, 170. 강조는 인용자)

식민지 조선 시기 지식인 청년 사회주의자들의 청년론을 현 시기 북한의 청년세대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시간적 괴리와 역사적 전통을 간과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하고, 수양과 같은 내면적인 성찰보다는 폭발적 행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측면은 오늘날의 청년세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사상과 맞는 부분이 있다. 뒤에서 거론하겠지만 ‘속도전청년돌격

대'로 상징되는 북한 청년세대의 저돌성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보다 주관적인 행동의지를 최상의 것으로 보는 북한의 청년정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청년론은 물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사회주의 청년(론)의 전통이 아니라 청년 공산주의자로서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전통에 있다. 북한은 1926년 김일성 주도로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트.디>)을 골간으로 1927년 김일성이 핵심적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결집하여 반일혁명을 벌이기 위해 만든 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북한 청년운동의 효시라고 선전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청년세대에게 항일투쟁 시기 김일성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혁명전통이며 이를 충실히 배우고 계승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김종수 2002, 16-17). 김정일(2000, 211)은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보시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이 청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밝혔으면서, “혁명위업의 명맥을 잇고 그 장래를 걸머질 담당자는 다름아닌 청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²⁾

2. '청년중시' 정책과 북한영화

북한 체제성립 이후 청년은 노동계급과 함께 늘 중요시되는 계층이었지만 특별히 '청년중시' 사상과 정책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 김종수에 따르면, 북한에서 '청년중시'란 용어를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 문헌은 발견할 수 없고,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사적 표현에 가깝다. 그는 '청년중시'를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치·경제 활동의 중요성이 보다 강

2) 이하 북한문헌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따른다.

조되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로 이해한다(김종수 2008, 347).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북한 당국을 긴장시켰다. “제국주의자들은 이전 쓰련과 동구라과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분렬와해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악랄하게 류포”시키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의 의식을 부패타락시키고 색정과 강간, 치부에 대한 숭배를 ‘최상의 가치’로 심어” 주었다고 신랄하게 비난한다.³⁾ 엮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고난의 행군’은 청년 세대를 포함하는 북한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0년대 이후의 『로동청년』, 『청년전위』⁴⁾의 기사를 중심으로 북한의 청년·청소년 세대의 의식변화를 연구한 이인정에 따르면, 1990년대 이전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 유달리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유주의, 출세주의, 배금주의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들과 일탈 행위를 경계하는 기사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북한 당국은 ‘청년중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의 핵심요지는 체제유지 강화를 위해 청년들을 혁명의 후비대이자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호명하고, 김일성의 청년 시기 항일무장투쟁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혁명전통화 작업을 수행하며, 경제건설에 청년들을 동원하기 위한 도덕적 자극을 가하고, (남성)청년 대다수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청년과 군대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김종수 2002, 89-90).

북한이 청년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1990년대 이

3) 『로동청년』 1993/01/23; 이인정(2007, 133-134)에서 재인용.

4)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기관지 『로동청년』은 1996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기관명이 바뀌에 따라 기관지명도 『청년전위』로 바뀌었다. 이인정(2007, 25-26) 참조.

후에는 자본주의의 ‘황색바람’을 경계하는 내용이 유독 강화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황색바람을 경계하는 것이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민감한 청년세대는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흥미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청년세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문제 말고도,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폐쇄적인 북한 청년들에게 외부 세계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 사회주의권 청년들의 반제국주의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던 북한 당국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북한 청년들은 남한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참가한 임수경을 비롯하여, 각국 청년학생들의 자유스러운 모습 속에서 자유화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기존에 진행해왔던 전통적인 교양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약화된 조직과 사상 관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청년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당국에서 바라보는 청년의 특성은 “새것에 민감하고 감수성이 빠르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미적정서가 강한 것”, 그리고 낭만적인 것과 낙천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이온죽 외 2010, 246). 이에 따라, 딱딱한 정치 강연 일색의 구태의연한 교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문화적 방식을 시도해 왔다. 1991년 8월에 제정된 청년절 역시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흥미롭고 신바람 나는’ 방식으로 노래 보급, 체육 경기, 야유회 등 다양한 유희 오락을 즐기는 사례 등이 추구하고 있었다(이온죽 외 2010, 246-247).

이러한 사회의 작은 변화는 같은 시대의 북한영화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청년을 다루는 영화들

이 대체로 항일무장투쟁 시기나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청년 공산주의 혁명가들이나 청년 전쟁영웅을 예찬하는 것, 혹은 동시대를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참다운 노동자나 당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다루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청년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의 앞장에 서서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치는 3대혁명소조원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사회과학원 2006) 했다고 평가되는 <청춘의 심장>(1981)이나 ‘조국해방전쟁’ 시기 헌신과 희생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청년전사 리수복영웅을 조명한 <영원한 청춘>(1984)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화들이 다분히 본받아야 할 청년영웅의 형상을 다루고 있다면, 1990년대에는 지양해야 할 청년들의 모습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우리 사로청위원장>(1993)은 청년들의 사상과 의식을 북돋우며 조직 동원하기보다는 ‘쉬운 사업’에만 집중하는 부정적인 당 일꾼이 등장하는데, 그는 청년들의 혁신과 교양보다는 자기 명예에만 관심을 갖는다(이온죽 외 2010, 109). 1990년대 후반에 나온 두 편의 영화 <먼 후날의 나의 모습>(1997)과 <즐기는 뿌리에서 자란다>(1998)는 부정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는다. 전자는 외할아버지가 ‘애국열사’이고 아버지가 ‘노력영웅’인 청년 신준이 (조)부모세대의 공적에 힘입어 허세를 부리며 허송세월하다가 청년돌격대 대원이었던 수양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며 크게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 대하여 북한의 한 평론가는 “새 세대 청년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한다(박무환 1998, 52). 후자는 망나니패의 우두머리가 되어 불건전한 청년들과 못된 짓을 일삼다가 법적인 제재까지 받았던 청년 류승철이 그

동안 지은 죄를 씻기 위해 청년돌격대에 들어가 성실한 청년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영화 역시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격조높이 찬양한 예술영화”로 평가받고 있다(최성호 1998, 22).

악행이나 과오를 행하더라도 결국에는 당과 동료들의 교양사업에 의해 개과천선하는 인물이라는 결말은 북한영화의 주요한 특징이지만, 이기적이고 허세와 일탈을 일삼는 주인공이 등장했다는 것은 1990년대 북한사회가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계도해야 할 만큼 다소 위태로운 시기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다음에 살펴 볼 2000년대 초반의 영화들은 1990년대 영화들에서 간간히 등장했던 부정적인 청년들의 모습보다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북한 청년들의 패기와 활력으로 점철된다. 몇 편의 영화들만 놓고 진단하는 것은 선부른 결론일 수 있지만, 이는 청년들의 자유화 분위기와 일탈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청년들을 체제 내화시키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북한 당국의 자신감의 반영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2000년대 초반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의 형상

1. 청년 과학자의 깨끗한 양심-〈흰 연기〉와 〈세대의 임무〉

‘고난의 행군’을 거친 1990년대 후반,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며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변상정 2010, 198).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

력이다. 조국의 부흥발전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온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⁵⁾ 이듬해인 2000년에는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표현하며 “우리는 온 사회에 과학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원대한 포부와 피타는 탐구정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내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⁶⁾ 특히, 소수의 엘리트 청년들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이 빠른 청년세대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이온죽 외 2010, 258).⁷⁾

영화 <흰 연기>와 <세대의 임무>는 북한 당국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영화이자 청년 과학자의 시대적 임무를 강조한 영화이다.⁸⁾ <흰 연기>는 북한의 영화평단에서 “우리 시대 청년 과학자들은 당과 조국이 바라는 과학기술적문제를 그 어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도 끝까지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감동깊은 영화적형상으로 훌륭히 형상해 내었다”는

5)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1999/01/01)

6)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2000/01/01)

7) “우리 당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선진수준으로 끌어 올릴것을 결심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새 세대 청년들은 누구나 다 현대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고 새 기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김정일(2000, 227).

8) 이 밖에도 이 시기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과학기술소재 영화로는 참된 인간생명의 가치를 일깨워가는 청년 의학자의 삶을 다룬 <생의 메아리>(2000), 한 농촌의 청년 분조원들이 새 품종의 뽕나무 연구에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뽕따는 처녀들>(2001) 등이 있다.

평을 얻었으며 주인공 유철을 연기한 리영호의 연기가 크게 호평을 받았다(손태광 2000, 22).

이 영화에서 리영호가 연기하는 유철은 화력 발전소의 연구사이자이다. 대학시절 손꼽히는 수재였던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미분탄에 대한 연구 과제를 맡게 된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연구 과제를 내심 기꺼이 맡게 된 것은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운 연구 과제는 자칫하면 그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을 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기도 하다. 영화의 초반부에는 당 간부가 유철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다. 당 간부는 유철에게 당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지만 유철은 과학기술적 문제는 주관적 욕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당 간부는 기술적 조건을 따지기에 앞서 당의 요구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의 패배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유철이 아버지의 연구 과제를 이어 나가는데 망설이는 것은 희박한 가능성 때문만은 아니다. 동료연구사이자 애인인 혜림(김혜경 분)의 만류 때문이기도 하다. 그녀는 유철 아버지의 동료 과학자였던 허일수의 조언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연구에 유철이 매달려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철이 마음을 돌려 아버지가 남긴 과업에 매진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홍영희 분)의 설득과 아버지의 연구를 가까이서 지켜본 부기사장 진승학(조명선 분)의 충고 때문이다. 특히 진승학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유철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는 남의 물건을 가끔씩 빌려 쓰고도 보답을 하는데, 하물며 자신을 키워준 당과 조국의 은혜를 갚을 줄 몰라서야 되겠느냐고 타이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과학자가 된 것인가, 조국을 위해 과학자가 된 것인가 하고 묻는다. 이에 더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구를 정말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면 아버지가 만든 기계

를 부수라고 강하게 다그친다. 유철과 함께 보다 앞날이 보장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던 혜림에게 유철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나가게 된 유철이 자랑스럽다며 혜림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유철의 어머니이다.9)



〈사진 1〉



〈사진 2〉

영화는 이렇듯 부모 세대의 인물들이 청년 세대의 인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영화 속에서 유일한 부정적 인물이 있다면 과학자 허일수이다. 그는 유철 아버지와와 공동연구가 별다른 성과가 없자 연구에서 손을 떼 후 출세주의자의 길을 걷는다. 그는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철 아버지를 실패한 과학자라고 치부하면서,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자부해왔다. 진승학 부기사는 연구 사업에서 난관에 봉착한 유철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 더불어, 깨끗한 양심을 갖고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는 유철 같은 청년 과학자를 사심 없이 도와주지 못한 자신들 세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설득한다. 허일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자책하며 당 간부에게 ‘자기 총화’를 한다. 그것은 당의 뜻대로 살지

9) 물론, 동년배 세대의 역할도 있다. 특히, 유철의 외사촌 동생이자 여군인 신옥은 탄광에서 사고를 막으려다 희생당한다. 북한영화에서 주인공의 각성과 각오를 강화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죽게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못한 자신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다.¹⁰⁾ 그의 자아비판을 들은 당 간부는 “과학자의 절대적인 충성심은 바로 우리 장군님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진심으로 받드는 것”이라며 그를 다독인다. 결국, 허인수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유철에게 협조하게 되고 유철의 연구 과제는 성공에 이르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은 아버지의 사진을 줌 인(zoom-in) 하여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것(사진 1)¹¹⁾에 이어, 마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듯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두 청년 과학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다(사진 2).

<세대의 임무>는 방직공장에 새로 부임한 소장 신혁(리영호 분)이 공장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겪게 되는 난관과 극복과정을 다루고 있다. 신혁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 세대 청년일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거나 컴퓨터를 배경으로 한 세팅을 자주 화면에 잡는다(사진 3, 4). 북한은 2000년대를 거치며 새로운 과학연구 성과와 기술혁신, 과학기술 행정사업 개선을 강조해왔으며, IT 산업 등 첨단기술의 개발·도입

10) 북한영화에서 부정인물의 사례들은 일제치하의 일본인과 반동지주, 친일 매국노와 그 하수인들, 미제국주의자, 남한의 ‘반동 부르주아’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북한의 현실과 이상을 그리는 소위 ‘사회주의 현실주제 영화’에서는 궁극적인 의미의 부정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온갖 모순과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정인물들은 중국에 가서는 ‘교양’되고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서정남(2002, 147) 참조. 이러한 특징은 영화인들 앞에서 한 김일성(1984, 448)의 다음과 같은 교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모순이 적대적 성격을 띠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취급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긍정과 부정과의 충돌이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갈등은 적대적성격을 띠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모순이 적대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에서의 갈등은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학예술작품에서 긍정과 부정의 충돌이 결렬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도 안됩니다.”

11) 이명자(2005, 132)가 거론하듯이, 이는 김정일 시기의 강성대국이 아버지 김일성의 유업과 치적에 아들 김정일의 노력이 결합되어 이룩될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을 추진해왔다(변상정 2010, 219-220). <세대의 임무>가 다루는 과학기술 환경과 청년 과학자 상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사진 3〉



〈사진 4〉

영화에서 신혁은 연구실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계획 승인여부를 다소 독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과감하게 결정하는 등 급격한 개혁을 추진한다. 그동안 연구소는 아버지 세대인 림진규 실장(김준식 분)과 중견세대인 량태모 실장(김성수 분)이 맡아오고 있었는데, 림진규는 젊은 세대의 패기와 추진력을 인정해 주는 훌륭한 연구자이지만 새 것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다. 량실장의 경우 공장에 많은 공헌과 헌신을 해 온 아버지 덕에 별다른 실적 없이 보신주의에 빠져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사람이다. 신혁은 오랫동안 연구소의 실무를 담당해온 량실장이 3년이나 실적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 미심쩍어한다. 더구나 그가 젊은 기사 리성민(석경진 분)을 노력동원을 핑계로 염소목장으로 쫓아 보낸 점을 의아해한다. 신혁은 성민이 좋은 연구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량실장 때문에 허송세월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다시 연구소로 불러들이고 량실장을 현장으로 좌천시킨다. 이에 량실장과 지은영 기사(리경희

분)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불만을 품는다.

영화는 량태모의 보신주의 뒤에는 림진규의 목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신혁이 갈등하는 것에서 극적 긴장감을 띠기 시작한다. 림진규는 7년 전 대학생이던 신혁이 공장에 실습 나왔을 때, 그를 지도했던 교육자이기도 했다. 그는 신혁이 써 온 논문이 남의 것을 베낀 것이라며 호되게 야단친다. 크게 뉘우친 신혁은 새로 논문을 써오고 림진규는 이제야 만족감을 느끼며 논문을 승인해준다. 그런데 그 논문의 내용은 림진규의 연구 내용과 많이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림진규는 신혁의 논문이 자신의 것보다 더 우수하다며 그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현재 소장이 된 신혁은 과거의 은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고민한다. 그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학자이지만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그러한 성격은 이미 상당한 단계에 들어선 연구를 갖고도 끝내 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청년 과학자로서 신혁이 갖고 있는 과감함은 림진규가 끝내지 못한 연구를 자신이 떠맡겠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지은영 기사는 신혁이 림진규의 연구를 가로채려 한다며 그를 혐의회에 회부한다.

혐의회에서 신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우리의 것을 수확하려 하는 것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과학자들이 제 임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진정한 윤리의 문제라고 항변한다. 자기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당 간부의 질문에 림진규가 나서서 하는 말은 이 영화에서 청년세대의 임무가 진정 무엇인지를 요약해준다. 북한영화에서 (조)부모 세대의 연장자가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를 들려주며 교양과 교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인데(서정남 2002, 101), 흔히 플래시백이나 대사를 통해 제시된다. <세대의 임무>에서 림진규는 전쟁 당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전쟁 시기 아바이 병사와 젊

은 병사가 있었는데 둘 중 하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철조망을 넘어야 했다. 젊은 병사는 부상을 당한 아바이 병사가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의감 때문에 자신이 옳드려 아바이 병사가 철조망을 넘도록 했다. 결국 아바이 병사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림진규는 자신을 아바이 병사에 비유하면서 청년세대에 힘을 실어준다. 이미 신혁의 연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첨단의 수준이라는 것이며 자신이 거기에 도달하자면 한참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흰 연기>와 마찬가지로 신구세대의 화합과 협력에 힘입어 신혁은 연구에 성공하게 되고 마침내 애초 목표였던 염색공장의 컴퓨터화 실현을 달성하게 된다. <흰 연기>의 허인수가 그러했듯이 현장으로 좌천되었던 량실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연구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흰 연기>와 <세대의 임무>는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과 화합, 협력의 문제를 다룬다. <흰 연기>가 부모세대의 ‘유혼’을 받들지 못하던 청년세대가 큰 깨달음 끝에 부모세대의 뒤를 잇는 이야기라면, <세대의 임무>는 청년세대의 패기와 추진력, 그리고 최첨단의 연구 성과를 위해 부모세대가 자신의 공적을 청년세대에게 양보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영화 모두 부모세대(특히 아버지)를 부정해야 할 낡은 것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¹²⁾

2. ‘청년동맹’의 속도전—〈청춘의 자서전〉과 〈청년들을 자랑하라〉 (1,2부)

1999년 신년 공동사설은 청년의 임무를 이렇게 쓰고 있다.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이다. 청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

12) “새것과 낡은 것의 대립이 세대갈등으로 나타날 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낡은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명자(2005, 59).

맹의 기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야 한다.”¹³⁾ 이듬해인 2000년에는 “전력공업과 석탄공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이다”며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것을 주창한다. 아울러,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건설사업을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¹⁴⁾ 북한에서 청년들은 돌격대의 이미지와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일이 후계자로 급부상하던 1975년 그의 지도로 설립된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단지 청년들을 동원하는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며, 군대식 조직체계와 규율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위대’이자 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비대’로 규정되고 있다 (김종수 2007, 359).¹⁵⁾

영화 <청춘의 자서전>과 <청년들을 자랑하라>(1, 2부)는 각각 석탄을 캐고, 고속도로를 뚫는 ‘청년동맹’¹⁶⁾의 청년돌격대를 다루고 있다. <청춘의 자서전>은 북한에서 “자서전에 화려한 경력을 새겨넣으려고 어느 한 기계공장에 내려와 일하던 한 청년이 새 탄발개발전투장에서 자신을 깨닫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청춘을 참답게 빛내어나가는 이야기”라고 소개된다(문학예술출판사 편 2002, 262).

-
- 13)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1999/01/01)
- 14)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2000/01/01)
- 15) 김종수(2007, 361)에 따르면, ‘속도전’은 1970년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데 불과 40여 일 밖에 안 걸렸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서 영화라는 스펙터클이 얼마나 대중동원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 영화의 이미지뿐 아니라 제작과정 자체도 정치적 스펙터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속도전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서 전시노동체제와 천리마 운동을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수(2008, 331-332) 참조.
- 16) 영화 속에서는 ‘청년동맹’이라고만 제시되지만, 북한 유일의 청년동맹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특히, <청년들을 자랑하라>(1,2부)의 엔딩 타이틀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는 자막이 나온다.

진호(리은식 분)는 노동성 부상의 아들로서 기계전문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층이다. 그가 영대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출세에 도움이 될 노동계급으로서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동맹의 평정서를 잘 받을 생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맡겨줄 것을 공장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인 설향(김경애 분)에게 부탁한다.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설향은 그를 무진대 탄발조성 전투장으로 추천한다.

대대의 대표로 공사추진을 위한 협의회에 나간 진호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는 당 간부의 질문에 굴착기, 대형자동차, 불도저 등 중장비 기계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여기에 당 간부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청년동맹에게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이 청년이라는 말만 해도 공지를 갖게 된다고, 공사 역시 돈과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돌격대원들이 사상과 신념으로 하는 공사라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 모든 것은 사람의 사상과 신념, 의지로 가능하다는 주체사상의 극단적 주관주의가 담긴 이 장면은 <흰 연기>에서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유철을 꾸짖으며 당의 요구와 의지를 설파하던 당 간부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흰 연기>에서 유철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역할은 진승학과 어머니 등 부모세대이지만 <청춘의 자서전>에서 그 역할은 동년배인 설향과 그녀의 남동생 설봉이 떠맡게 된다.

설향은 우연히 진호의 애인인 미경(박윤희 분)이 진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즉 진호가 평정서를 잘 받기 위해 마지못해 공사장에 가게 된 것이라는 내용을 읽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설향은 진호에게 “자기가 걷는 걸음걸음이 아버지 장군님께 바치는 깨끗한 양심의 자욱으로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여기에 더해 설향의 남동생 설봉이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큰 바위를 온 몸으로 막다가 희생당한다. 이것은 <흰 연가>에서 유철의 외사촌 여동생 신옥의 살신성인과 맞닿아 있는 극적 설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진호는 대오각성하고 새 출발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그가 진심으로 공사 일에 전념하게 되자 그를 배신한 미경에 대해 “너야말로 우리 시대의 속물”이라고 말한다. 미경은 노동성 부상인 그의 아버지와 그를 둘러싼 배경에 반해 그를 좋아했던 것이다.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이 두 여성의 극명한 대립은 효과적인 영화적 기법으로 제시된다. 참된 청년 간부로서 커다란 통나무를 힘겹게 끌고 있는 설향의 숲(사진 5)과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가중스러운’ 말을 하

는 미경의 숲(사진 6)이 이내 디졸브(dissolve) 되지만(사진 7) 끝내 남는 것은 악전고투하는 설향의 숲이다(사진 8). 이것은 참다운 청년의 길이 설향에게 있음을 제시한다.

이제 진심어린 청년일군이 된 진호는 공사 완결을 앞당길 수 있는 연속다발과법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마침내 새 탄맥을 찾아내는데 중추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영화의 종반부 대대장의 연설에서 청년돌격대의 과업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김정일의 치하의 말과 함께 진호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된다.¹⁷⁾

<청년들을 사랑하라>(1,2부)는 “류레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진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헤치면서 청년영웅도로를 강성대국 건설의 대통로로 훌륭히 건설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투쟁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문학예술출판사 편 2005, 210) ‘청년영웅도로’라는 명칭은 1998년 11월~2000년 10월까지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투입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 청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북한 당국이 부여한 영예로운 이름이다(김종수 2007, 370). 이 건설사업에는 연 5만 명의 전국 청년들이 참가했는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자극제’ 역할을 수행했다(김종수 2008, 332).

영화는 여단 시공 참모 주승민(리영호 분)과 청년돌격대 대대장 김원범(리원복 분)의 대립구도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승민은 원범이 전에 있던 기관에서 발전기 사고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명예만을 좇느라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위치에

17) 실제로, 청년돌격대를 통해 ‘노력영웅’이 된 청년들이 20여 명,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이자 120여 명, 국가표창 수여자가 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김종수(2007, 375).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지고 물러난 것은 노일꾼이자 노당원인 김석태 ‘아바이’(강효선 분)였던 것이다. 김석태 아바이는 <흰 연기>의 진승학이나 <세대의 임무>의 림진규와 같은 경험 많고 자애로운 노세대를 대변한다. 영화가 전개되면서 그가 원범의 아버지임이 밝혀지는데, 그는 처음엔 어려운 결전장으로 가는 젊은이들 앞에 걸림돌이 되기 싫어 자신이 물러나지만, 나중에는 아들이 경력과 공명심만을 좇는다고 개탄하며 아들을 제명시키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다. 이 장면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원범의 플래시백을 통해 전달되면서 보이소버 내레이션이 곁들여지는데, 그 내용은 부모세대가 자식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성을 ‘장군님’에게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사진 9〉



〈사진 10〉

영화의 후반부에서 김석태 아바이가 들려주는 전쟁 시기 자신의 이야기는 <세대의 임무>에서 림진규가 들려주는 철조망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주승민이 제기한 ‘날려쌓기 발파’를 앞둔 결전의 날 전야에 청년들의 신발을 수리해주는 봉사¹⁸⁾를 하며 그 이야기를

18) 신발을 수리해주는 봉사 장면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것은 김정일이 어느 군당책 임비서의 아내가 구두수리공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높이 평가했으며, 이는 직업 귀천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말한 것과 연동되기 때

들려준다. 그는 전쟁 시절 민청위원장으로 참전했는데, 민청 즉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원이라는 점에서(이은죽 외 2010, 65) 이 이야기는 청년동맹 일꾼들에게 자신의 조직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성격을 갖는다. 이야기는 비겁분자로 낙인 찍혔던 나이 어린 병사가 궁극에는 전투에서 숭고한 희생으로 고지탈환에 수훈을 거두었다는 내용이다. 이 장면은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 필름을 사용하고 있으며(사진 9) 이내 극영화의 전투장면과 겹쳐짐으로써(사진 10) 실재했던 역사를 허구와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극영화라는 허구를 통해 실재했던 역사를 신화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북한영화의 갈등구조가 늘 그렇듯이 승민과 원범의 대립도 결국에는 힘을 합쳐 발파 작업에 성공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완공하는 것으로 용해된다. 사실, 이 영화는 앞선 세 편의 영화에 비해 주인공들의 이야기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개인영웅보다는 집단영웅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승민의 여동생이자 어머니의 뒤를 이어 건설노동자가 된 사연을 갖고 있는 은하 소대장(김련화 분), 피아노를 좋아하여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돌격대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처녀 돌격대원 홍아(조순임 분),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겨워 꿈에서 ‘장군님’을 만나고서는 현실에서 그를 봤다고 생각하는 철관(리종국 분) 등 한명 한명의 개인이 모여 청년동맹이라는 불굴의 집단을 만들어 간다. 이 영화에서 결집과 정렬, 행진과 환호의 대규모 군중 장면이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사진 11~13).



〈사진 11〉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1,2부를 합쳐 3시간에 달할 만큼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청년들을 자랑하라>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모두 이겨내고 사상의식의 주관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의 영화이면서, 감성적·행동적 주체이자 폭발적 행동의 담지자로서 청년동맹의 모습을 하나의 전설이자 신화로 만드는 영화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붉게 물든 태양빛을 향해 내어뻐은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일종의 시점 쏙인데 이는 마치 ‘장군님’(태양)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청년들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다(사진 14).

IV. 맺는 말

2000년대 초반 북한에서 청년세대의 문제는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자본주의의 ‘황색바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사상과 의식의 해이, 이탈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을 단속, 통제하는 것과 연관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제기된 청년중시 정책은 청년들을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가와 당,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청년세대를 다룬 북한영화들은 이러한 시대상을 정책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론, 영화와 현실이 일대일의 조응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로부터의 인민의 현실보다 위로부터의 당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북한영화의 특수성에 입각해 볼 때, 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부 영화가 사상적 해이와 이탈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높은 사상적 의식과 도덕을 통해 교정된다.

영화에서 주로 청년세대가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여 올바른 길로 나가는 데에는 (조)부모로 대변되는 노세대의 가르침과 교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년중시 정책과 함께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반영하는 <흰 연기>와 <세대의 임무>에서 청년 과학자의 깨끗한 양심은 주로 부모세대의 ‘유훈’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에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과학연구를 계승해나가는 유철이 그렇고, 후자에서도 립진규의 연구업적을 청년 과학자 신혁이 계승한다. 부모세대, 특히 아버지나 유사아버지로 지칭될 수 있는 인물들은 죽었거나 정체되어 있지만 결코 거부하거나 청산해야 할 낡은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 드넓은 이해심과 자애로움으로 자식 세대를 감

싸 안으며 자식세대는 그런 부모세대를 존경심으로 받든다. 이는 4년간의 유훈통치를 거친 김정일 체제가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것, 인민들이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청년 특유의 패기와 저돌성은 네 편 영화 모두의 공통점이지만 청년동맹을 재현한 <청춘의 자서전>과 <청년들을 자랑하라>(1,2부)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재현된다. 이 영화들에서 청년들은 객관적 조건과 상황을 주관적 의지와 사상, 신념으로 타개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감성적·행동적 주체이자 폭발적 행동의 담지자로 위치 지어진 사회주의 청년론과 맞닿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객관적 조건을 초월하여 인간의 사상과 의식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북한 특유의 통치이념, 주체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두 영화에서 청년들은 참다운 청년의 길을 가는 동년배에게서(<청춘의 자서전>), 혹은 청년 조직 전통의 역사와 신화를 들려주는 노세대에게서(<청년들을 자랑하라>) 청년으로서의 긍지를 배우고 열정과 국가, 당,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한다.

북한영화 속 청년·청소년 세대의 계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들은 이후 나오게 될 <녀병사의 수기>나 <한 녀학생의 일기>와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편의 영화는 각각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을 지향하는 북한에서 청년보다 한 세대 어린 청소년들의 사상교양과 함께 이전 시대의 틀로는 가뉘돌 수 없는 북한 청소년들의 솔직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 시기의 북한영화와 청년 세대의 문제를 포함해서 연구의 영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키는 것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투 고 일: 2014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1월 25일

참고문헌

1. 영상자료

- <세대의 임무>(2002.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학철 영화문학, 천영민 연출)
<청년들을 사랑하라>(1,2부. 2003.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리종현 영화문학, 김현철 연출)
<청춘의 자서전>(2001.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리인철 영화문학, 천영민 연출)
<흰 연가>(200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세혁 영화문학, 김청일 연출)

2. 문헌자료

- 김선아. 2013. “<한 녀학생의 일기>를 통해 본 북한영화 관객성 연구.”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선전과 교양: 북한의 문예교육』. 서울: 경진.
- 김일성. 1984.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71/10/22) 『김일성 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8. “청년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1993/02/26)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0.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1996/08/24)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종수. 2002. “북한의 ‘청년중시’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논문.
- _____. 2007. “북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관한 연구.” 『東亞研究』 53: 357-384.
- _____. 2008. 『북한 청년동맹 연구: 체제 수호의 전위대, 청년동맹』. 파주: 한울.
- 로즈먼, 마크. 2014.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세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독일에서 나타나는 신화, 세대 정체성, 세대 갈등.” 울리케 유라

- 이트·미하엘 빌트 편.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
담론의 주제들』. 박희경 외 역. 파주: 한울.
- 문학예술출판사 편. 2002.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90(2001)』. 평양: 문학
예술출판사.
- _____. 2005. 『조선문학예술년감: 주체92(2003)』. 평양: 문학
예술출판사.
- 박무환. 1998. “[평론] 오늘에 비긴 내일을 본다: 예술영화 <먼 후날의 나
의 모습>을 보고.” 『조선예술』 1998년 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
판사.
- 변상정. 2010. 『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파주: 한국학술정보.
- 사회과학원. 2006. 『문학예술대사전』(DVD). 평양: 사회과학원.
- 서정남. 2002. 『서정남의 북한영화탐사』. 서울: 생각의 나무.
- 손태광. 2000. “[평론] 생활적인 연기는 감동이 크다.” 『조선예술』 2000년
9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유라이트, 올리케·미하엘 빌트. 2014. “세대들.” 올리케 유라이트·미하엘
빌트 편.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
들』. 박희경 외 역. 파주: 한울.
- 이기훈. 2014.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 파주:
돌베개.
- 이명자. 2005. 『북한 영화와 근대성: 김정일시기 가족멜로드라마』. 서울:
역락.
- _____. 2008.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영화에 나타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긴장관계: <녀병사의 수기>, <한 녀학생
의 일기>의 고백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1(3): 213-238.
- 이온죽·이인정. 2010.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 사
회변동과 체제유지의 기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인정. 2007. 『북한 ‘새세대’의 가치지향 변화』.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중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이중훈. 2005. “모로조프, 스타하노프, 슈미트: 스탈린 시대의 영웅들.” 권형진·이중훈 편. 『대중독재의 영웅 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 전영선. 2005. “북한 사회의 정체성과 북한 영화: 청소년 영화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28: 353-380.
- _____. 2010. “북한영화의 유형과 학문 분류체계.”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북한 문화예술의 장르론적 이해』. 서울: 경진.
- 차문석. 2005. “레이핑, 김확실: 마오쩌둥-김일성 체제가 만들어낸 영웅들.” 권형진·이중훈 편. 『대중독재의 영웅 만들기』. 서울: 휴머니스트.
- 최성호. 1998. “형상창조에서 바쳐진 충효의 마음: 예술영화 <즐기는 뿌리에서 자란다>의 창조과정에 있는 이야기.” 『조선예술』 1998년 1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한승호. 2009. “선군시대 북한영화에 나타난 과학자 형상 연구.” 『북한학보』 34(2): 179-203.
-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1999/01/01)
-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2000/01/01)
- Shary, Timothy. 2002. *Generation Multiplex: The Image of Youth in Contemporary American Cinem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North Korean Films and Young Generation in the Early 2000s:

Focusing on the Images of Young Scientists and ‘Youth League’

CHUNG Young-Kwon

Institute for Arts and Technology of Korea,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issue of young generation represented by North Korean films in the early 2000s. Since 1990s North Korea has controlled the idea and consciousness of the young people going through with the fall of Eastern European socialist bloc and 'North Korean famine.'

While North Korean narrative film, *White Smoke* (2000) and *A Mission of Young Generation* (2002) represent young scientists, *An Autobiography of the Youth* (2001) and *Boast of Young People* (2003) represent Kim Il-Sung Socialist Youth League. In these films, old generation, particularly father figure and pseudo-father figure are dead or stagnant. However, they are not outworn object whom young people need take away. But rather, since old generation has knowledges, wisdoms, understandings and benevolences, young generation respects them deeply.

Between 1994 and 1998,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did so called 'Ruling with Dying Instruction.' This is a following the teaching left by Kim Jong-Il's father, Kim Il-Sung, the founder of North Korea. The Above films reflect these atmospheres of that times.

Keywords: North Korea, film, young generation, young scientist, Youth League, Policy of Youth Consideration